

# 196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 - 1960년대

## 1. 서론

'1960년대'란 1960년 1월 1일부터 1969년 12월 31일까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시기였다. 이 시기를 '1960년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60년대 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는 '1960년대'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는 '1960년대'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는 '1960년대'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960년대인천역,하인천-부평-소사-영등포-서울역 가는 시외버스

1960년대 인천역, 하인천-부평-소사-영등포-서울역 가는 시외버스. 60년대 초반에 운행되던 시외버스는 주로 1층 구조였으며, 승객들은 대부분 짐을 들고 탑승했다. 이 시기에 버스 운행은 지역 간 교통을 크게 발전시켰다. 당시의 버스 운행은 주로 인천역, 하인천, 부평, 소사, 영등포, 서울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 버스 운행은 지역 간 교통을 크게 발전시켰다. 당시의 버스 운행은 주로 인천역, 하인천, 부평, 소사, 영등포, 서울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운영되었다.



1962년 화폐개혁 모습前조흥은행 인천지점 (경동)

1962년 6월 10일 '100원' '1000원' 단위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화폐개혁이 실시되었다. 이 시점에서 조흥은행 인천지점은 화폐개혁을 맞이하여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000원 100원 단위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화폐개혁이 실시되었다. 이 시점에서 조흥은행 인천지점은 화폐개혁을 맞이하여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000원 100원 단위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화폐개혁이 실시되었다. 이 시점에서 조흥은행 인천지점은 화폐개혁을 맞이하여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000원 100원 단위로



1966년6월1일 인천제2도크 축조기공식 (장소 공설운동장)

1966년 6월 1일 인천제2도크 축조기공식이 인천광역시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노동자, 학생, 시민 등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더 일하는 해' '증산출출건설'의 구호를 외치며, '도도도도' '도도도도'의 구호를 외치며, '도도도도' '도도도도'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노동자, 학생, 시민 등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더 일하는 해' '증산출출건설'의 구호를 외치며, '도도도도' '도도도도'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노동자, 학생, 시민 등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더 일하는 해' '증산출출건설'의 구호를 외치며, '도도도도' '도도도도'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노동자, 학생, 시민 등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더 일하는 해' '증산출출건설'의 구호를 외치며, '도도도도' '도도도도'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노동자, 학생, 시민 등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더 일하는 해' '증산출출건설'의 구호를 외치며, '도도도도' '도도도도'의 구호를 외쳤다.

도 /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 / 도도도도도도